

“철저한 준비와 계산” KIA 김호령, 빅캐치 비결 밝혔다

2015년 입단 이후 국내 최상급 수비 평가

“시즌 끝날때까지 다치지 않고 1군에 있겠다”

무조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계산에 따라 타구의 방향을 예측하고, 빨리 스타트하는 것이었다.

수비귀재로 정평이 나 있는 KIA 타이거즈 외야수 김호령(30)이 밝힌 비결이다. 수비 준비를 하는 루틴이 이순철 SBS 해설위원의 선수시절과 똑같다.

지난 8일 허주석의 좌중간을 빠지는 2루타성 타구를 막은 슈퍼캐처로 팀을 승리로 이끈 김호령의 중견수 수비가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2015년 입단 이후 김호령의 수비는 국내 최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빠르게 날아가는 타구를 잡아내는 능력으로 투수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

지난 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난 김호령은 “다른 팀 중견수들도 수비 잘한다.

나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신의 평점을 매겼다. 실제로 그의 수비는 LG 박해민, 두산 정수빈 등 결출한 중견수들과 자주 비교되곤 한다. 타격과 잦은 부상 때문에 주전이 되지 못한 것일 뿐이었다.

김호령은 자신만의 수비 비결도 밝혔다. “연습할 때 타자들 타이밍을 보고, 방향이 나올 때 타이밍이 늦었는지 빨랐는지도 본다. 투수들도 본다. 공이 방망이에 맞을 때 스타트를 하는 것을 많이 연습했다. 이렇게 치면 여기로, 저렇게 치면 저기로 갈 것 같다는 등 방향을 예상하고 빨리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순철 해설위원도 해태 시절 아주 잘나가는 중견수였다. 그는 경기전에 자신의 훈련을 마치더라도 상대 타자들의 타격 훈련을 지켜보는 루틴이 있었다. 타자들의 타이밍과 컨디션을 살피고 타구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다. 실전에 들어가면 유용하게 활용했다. 그런 준비가 있기에 김호령도 호수비가 나오는 것이다.

김중국 감독은 “그 정도면 호령이에게는 쉬운 타구이다. 스타트가 좋고 타구가 어디에 떨어지는 것을 알고 한다. 나도, 코치도, 팬들도 그런 수비를 원한다. 안타도 치고 선제타점도 올렸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그런 수비하나 해주고, 작전 상황에서 연결고리를 해주면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3할 타율은 바라지 않는다. 호령이가 제일 잘하는 것만 해주면 된다. 이제 요령도 생겼다. 후반기에도 부상관리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해달라. 소크라테스가 부상에서 복귀하기까지 선발출전시킬 것이다”고 약속했다. 김호령이 주루, 작전, 수비 등 여러가지로 팀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김호령은 부상(열구리 근육 파열) 복귀후 정타를 만들어내는 등 스윙이 날카로워졌다. 야수 정면으로 날아가 안타가 안되는 타구도 많다.



김호령은 “타격 매커니즘을 놓고 코치들과 많이 이야기했다. 타이밍을 잘 잡는 연습을 많이 했다. 폼을 떠나서 무조건 타이밍인 것 같다. 그걸 연습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시즌 끝날때까지 다치지 않고 1군에 있겠다”고 약속했다. 사령탑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다

이슬비기자



막강 선발진·찬스 강한 타선...SSG 전반기 1위 원동력

수비 탄탄·실책 두 번째로 적어...새 외인 라가레스·모리만도 등 지원군도 합류

시즌 개막 이후 줄곧 선두를 질주한 SSG 랜더스가 전반기를 1위로 마무리했다.

강력한 선발진과 탄탄한 수비, 찬스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 타선을 앞세운 결과다.

SSG는 지난 12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간판 타자 최정의 역전 3점포를 앞세워 7-3으로 승리했다.

56승 3루 26개파 된 SSG는 2위 키움(54승 1루 31패)과 격차를 3.5경기로 벌여 남은 2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전반기 1위를 확정했다.

SSG가 전반기 내내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은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리그 최고로 꼽히는 선발진이다. SSG의 팀 평균자책점은 3.75로 4위지만, 선발 평균자책점은 3.31로 리그 2위다.

외국인 에이스로 떠오른 윌버 폰트와 토종 좌완 에이스 김광현이 이르는 원투펀치가 막강하다. 폰트는 10승 4패 평균자책점 2.02를, 김광현은 9승 1패 평균자책점 1.65를 기록 중이다. 김광현과 폰트는 평균자책점 1.2위를 달리고 있다.

KBO리그 데뷔 첫 해인 지난해 25경기에서 8승 5패 평균자책점 3.46을 기록했던 폰트는 올해 ‘이닝 이터’로 거듭나면서 패조의 활약을 선보였다. 17차례 등판 중 14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찍었다. 퀄리티스타트 플러스(선발 7이닝 이상 자책점 이하)도 12번이나 해냈다.

2020~2021년 메이저리그(MLB)에서 뛰고 돌아온 김광현은 한층 노련한 투구를 선보이며 리그에서 유일하게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 중이다.

이들의 뒤를 받치는 선발 투수들도 든든하다. MLB 90승에 빛나는 이반 노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채 퇴출됐지만,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선발로 시즌을 시작했다가 4월에 불펜으로 보직을 바꿨던 이태양은 5월부터 다시 선발진에 합류, 한 축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이태양은 올해 19경기에서 6승 2패 1홀드 평균자책점 2.93의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2021시즌을 마친 뒤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돼 은퇴 기로에 섰다가 SSG에 새 동지를 둔 베테랑 우완 노경은은 불의의 부상으로 두 달간 전력에서 이탈했지만, 회복한 모습을 한껏 자랑했다. 올 시즌 8경기에서 5승 3패 평균자책점 3.38의 성적을 거뒀다. 그는 지난 12일 키움전에 선발로 나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

다. 프로 3년차에 접어든 좌완 영건 오원석은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힘을 더하고 있다.

찬스 상황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는 타선도 SSG가 선두를 달릴 수 있는 힘이었다. SSG의 팀 타율은 0.259로 4위지만, 득점권 타율은 0.285로 리그에서 가장 높다. 타점도 404개로 리그 1위다.

특히 주장 한유섭은 득점권에서 타율 0.323을 기록하며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는 현재 72타점으로 이 부문 1위를 질주 중이다.

간판 타자 최정(0.307)과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 주전 유격수 박성한(0.351), SSG 공격 첨병으로 거듭난 최지훈(0.382)도 모두 득점권에서 집중력을 발휘했다. 또 올해 1군에 데뷔한 거포 유망주 전의산의 득점권 타율은 0.480에 달한다.

탄탄한 수비도 SSG의 선두 질주에 한 몫 했다. 올 시즌 SSG의 팀 실책 수는 57개로, KT 위즈(53개)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수비를 0.982로 KT(0.983)에 이어 2위에 오를 정도로 수비가 안정적이다.

전반기 1루로 마친 SSG에는 지원군도 온다. SSG는 부진을 이어가던 외국인 타자 케빈 크론과 노바를 모두 퇴출하고, 새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외국인 타자 후안 라가레스와 좌완 투수 손 모리만도를 새롭게 영입했다.

SSG는 라가레스와 모리만도가 후반기 시작 시점부터 합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른 지원군도 있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인대접합수술(토미존 서지리)을 받은 문승원이 지난 10일 복귀, 불펜진에 합류했다. 그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 구원 등판해 1⅓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SSG 불펜진이 선발진과 비교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인 터라 문승원의 합류는 무척이나 반갑다.

여기에 문승원과 함께 팔꿈치 인대접합수술을 받았던 박종훈도 복귀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복귀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은 후반기에는 1군 합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군이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SSG의 투수 체제는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12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도 바라볼 수 있다.

프로축구 광주, 신예 공격수 양창훈 영입

최전방부터 미드필드·수비까지 두루 가능

프로축구 K리그2(2부) 광주FC가 멀티플레이어 가능한 공격수 양창훈을 영입했다고 13일 전했다.

K4리그 서울중앙축구단에서 활약한 양창훈은 자유계약을 통해 광주 유니폼을 입게 됐다.

186cm 82kg의 양창훈은 큰 키에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킥, 마무리 능력을 갖춘 최전방 공격수다. 다재다능함을 앞세워 좌우 측면 공격은 물론 미드필드와 수비수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이자.

한양공고를 거쳐 2018년 중앙대에 진학한 양창훈은 1학년부부터 1·2학년 대학축구 연맹전, 2018 U리그 4권역 우승(6골)에 혁

혁한 공을 세웠다. 대학 무대에서 이름을 떨친 양창훈은 2022시즌 K4리그 서울중앙축구단에 입단해 프로 무대를 향한 여정을 마쳤다.

이정호 광주 감독은 “양창훈은 공격과 수비, 어느 포지션에 두어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재능 있는 선수”라며 “무엇보다 양창훈의 패기와 절실함이 돋보였다. 광주의 축구에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창훈은 “꿈에 그리던 프로 무대를 끈끈함과 투혼이 장점인 광주에서 시작하게 돼 기쁘고 설렌다”며 “신인다운 마음으로 묵묵히 헌신하고,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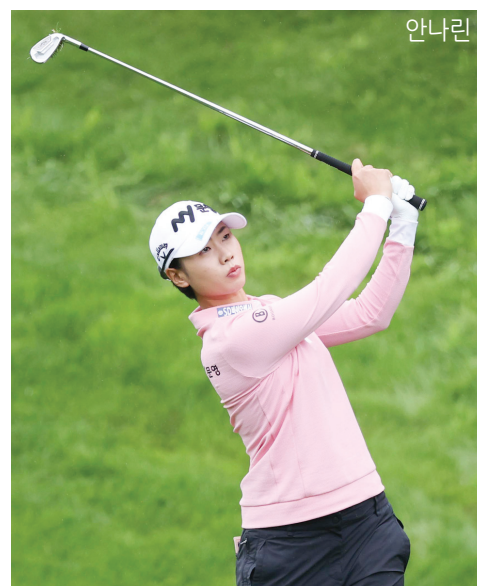
‘루키’ 최혜진·안나린, LPGA 합작 우승 도전

다우 그레이트 레이크스 베이 인비테이션셔널에 한 팀으로 출격



이번에는 선의의 경쟁자가 아닌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한 팀이다. 올해 나란히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무대에 뛰어난 최혜진과 안나린이 함께 우승 사냥에 나선다.

두 선수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다우 그레이트 레이크스 베이 인비테이션셔널에 동반 출격한다.

이 대회는 개인전이 아닌 2인 1조의 팀 경기로 치러진다. 1·3라운드는 하나의 공을 두 선수가 번갈아 치는 포템(얼터네이트샷), 2·4라운드는 각자 공으로 좋은 스코어를 팀 성적

로 인정하는 포블(베스트볼) 포맷으로 승부를 가린다.

대회 성적과 기록은 올해의 선수, 신인상, US 솔하이킵 포인트, 세계랭킹 포인트에 반영되지 않지만, CME 포인트와 우승 상금은 공식 적용된다. 팀 경기인 만큼 상금은 두 선수가 나눠 갖는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는 총 8명. 그 중에서 한국 선수들끼리 호흡을 맞추는 것은 최혜진과 안나린이 유일하다.

두 선수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웰리파인(Q) 시리즈를 나란히 통과했다. 안나린은 경쟁력 있는 선수들을 모두 뒤로 하고 수석 합격했고, 최혜진도 공동 8위로 LPGA 출전 카드를 확보했다.

아직 우승은 없지만 기량이 입증된 선수들이 만큼 서로 호흡만 잘 맞는다면 이번 대회에서 마수걸이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을 앞두고 주축 선수들이 일부 불참한 가운데 최혜진, 김아린, 홍예은 등도 파트너들과 함께 호성적을 바라본다.

최혜진은 미진 프란셀라(미국)와 한 조를 이뤘고, 김아린은 재미교포 노예림과 나흘을 보낸다. 광민서는 헤일리 무어(미국)와 함께 한다.

뉴스시스

LA 입단한 베일 “2026년 월드컵까지 현역 뛰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 FC에 입단한 가레스 베일이 당장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계약했다는 주위 예상을 일축했다.

영국 BBC는 지난 12일(한국시간) LA FC 입단 기자회견을 가진 베일이 카타르 월드컵 출전 때문에 잠깐 있을 곳으로 MLS를 선택했다는 주위 예상을 일축했으며 가능한 오랫동안 뛰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베일은 2021~22 시즌이 끝난 뒤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자유계약선수 신분으로 오는 2024년까지 옵션을 두고 있는 계약을 맺으며

LA FC에 입단했다. 그러나 베일이 당장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출전을 위해 급히 팀을 찾은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 또 베일이 MLS로 진출한 것은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뒤 웨일스 대표팀에서 은퇴하며 선수 말년을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베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LA FC에 온 것은 내게 한 차례 더 유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6개월, 1년 동안만 있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다. 가능한 오랫동안 여기 있을 것이며 최선을 다해 MLS와 LA FC에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또 베일은 “나는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짧은 미래가 아니라 다음 유로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LA FC에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은 아무도 MLS를 은퇴 리그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10월 창단한 LA FC는 같은 연고 라이벌 LA 갤럭시와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팀으로 올 시즌 MLS 19경기를 치르면서 12승 3무 4패로 서부 컨퍼런스 및 동서부 컨퍼런스 통합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뉴스시스